

가구 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Experience on Adolescents' Career Maturity

원지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Ji Young Won(jywon@kangnam.ac.kr)

요약

청소년기 진로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발달은 성인기 진입과 함께 정서·사회·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가구 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Youth Panel 2007) 데이터 중 1차시기와 3차시기 고등학생, 5차시기 대학생으로 유형 분류된 456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등학생 시기 가구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대학 재학 시기까지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가구 소득이 청소년의 진로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등학생 시기 진로지도 및 상담의 경험이 청소년의 대학 진학 이후까지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등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진로성숙 | 청소년 | 가구 소득 | 진로지도 및 상담 |

Abstract

The development of career knowledge and career attitude in adolescence is significant to achieve a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experience on changes in career maturity during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The study used data from Youth Panel 2007 colle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data included 456 adolescents who wer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first and third waves of survey and college students in the fifth wave of survey. The results suggested that family income was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The experience of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while in high school had a sustained and positive impact on the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even after entering college. Therefore, career education in the secondary educational system should expand continuously.

■ keyword : | Career Maturity | Adolescents | Family Income |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

* 본 연구는 2017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9년 01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2월 11일

수정일자 : 2019년 01월 30일

교신저자 : 원지영, e-mail : jywon@kangnam.ac.kr

I. 서론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이용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진로 발달은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자기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직업은 경제적 욕구 충족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청소년 시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6]. 직업 선택은 시간과 경험에 따라 성숙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특히 청소년기 진로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발달은 성인기 진입과 함께 일자리 획득을 통해 정서·사회·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중·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7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약 70%로 세 명 중 두 명이상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취업 준비가 대학생 시기로 연장되고 있다[7]. 많은 대학생들이 자퇴, 전과, 휴학, 졸업 유예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미루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의식이 대학 진학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변인으로 중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 및 상담의 효과성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진로지도 및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정하고 준비하여 노동시장 진입 시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장기적으로 진로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변화 경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과 고등학생 시기부터 대학

교 진학 이후까지의 진로 발달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교를 포함한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과 함께 가구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선행연구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진로성숙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습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8][9].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과 가구 소득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진로지도 및 상담과 가구 소득이 청소년의 진로성숙 과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진로교육이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 진로성숙의 격차를 완화하는 잠재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진로발달

직업은 경제적 욕구 충족과 더불어 많은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6][10]. 진로는 한 번 결정되면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변화하게 된다. Super[11][12]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진로발달은 자아와 환경 간의 조화를 향상시키는,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이다[13]. 청소년기는 탐색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성숙과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진로 고민과 진로 탐색에 있어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이 시기 진로성숙이 자아정체감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9][14-18]. 예를 들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합한 진로를 결정한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규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19][20].

진로성숙이 발달론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시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진로성숙 분야에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진로성숙의 수준 역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8][21-24]. 이러한 변화 경향은 중·고등학생 시기 전반에 걸쳐 관찰되었다[25].

이처럼 선행연구들 중 대부분은 중·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성숙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갈수록 연장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진로성숙 수준이 대학교 진학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진로성숙의 개념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진로성숙은 진로발달, 진로의식, 진로태도, 진로결정, 진로정체감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9][15]. 발달론적 입장에서는 진로결정이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성장·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도로서 진로성숙을 강조하였다[26][27]. 진로성숙은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28].

이제까지 선행 연구에서의 진로성숙은 크게 태도와 능력 차원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26]. 예를 들어 Crites는 Super의 진로발달 개념을 통합하여 진로선택 태도와 진로선택 능력 차원으로 구분한 진로성숙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를 개발하였다[29]. 최인재 등[30]의 연구에서는 진로·직업의식을 진로·직업에 대한 태도로 이해하고 이를 측정하는 지표를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결정성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는지를 의미하고,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공에 대한 개인적 믿음

과 확신 정도를,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를,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얼마나 주체적으로 결정하는지를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 수준을 계획성, 독립성, 준비성, 결정성 등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로 평가하였다.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청소년의 진로성숙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 정도 역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인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같은 가정환경 변인, 그리고 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동아리 활동, 독서 및 문화 활동을 들고 있다[31][32]. 이 외에도 부모-자녀 관계, 교사 또는 또래관계 역시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2].

특히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구 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 등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33]. 예를 들어 빈곤 경험이나 낮은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수준, 소득 수준 등은 청소년의 진로발달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9]. 반면에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34][35], 따라서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36].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 정도의 차이는 청소년 자녀를 위한 가용자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빈곤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은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의 결핍을 가져 올 수 있다[8][9][37]. 반면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 높은 사교육비 지출 등은 진로성숙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23].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성숙과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 갈등,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 부모의 무관심과 대화 부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7]. 이처럼 가정의 경제 수준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가정배경,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임현정 외[38]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성숙 발달을 연구한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며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교사 및 교우 관계, 교내·외 활동 참여가 진로성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또한 Flouri와 Buchanan이 영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진로성숙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39].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시기에 걸친 청소년의 진로성숙 변화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과 진로성숙

청년 실업 및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대학교 입학 전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이 201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었다. 구체적으로 2009년 중고등학교교육에 ‘진로와 직업’ 교과가 개설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가 ‘2013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교진로체험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여기에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다양한 체험방식의 교육프로그램들이 포함되었다[40][41]. 2015년 「진로교육법」의 제정과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 등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42].

진로교육은 학교, 가정 및 기관 등에서 진로의식 함

양과 진로 준비 등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적 경험을 의미한다[27]. 진로교육은 크게 교과를 이용한 방법과 교과 외 방법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43].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교과 외 방법을 활용한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진로지도 및 상담으로 정의하였다. 진로지도 및 상담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 체험, 진로 관련 적성검사, 상담활동, 전문가 강연 등이 포함된다[43].

선행연구는 진로지도 및 상담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역량, 직업가치 등 진로발달과업과 관련된 태도 및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44-47]. 2016년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활용하여 진로지도 및 상담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업인 특강 및 멘토링, 현장방문, 직업체험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가 진로발달역량, 자율적 학습동기, 자기 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48]. 김기현[49]의 연구는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활동 경험이 직업미결정성향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허정철[50]의 연구에서는 진로집단상담이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기 진로성숙은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연결된다[51].

진로지도 및 상담과 같은 공식적 서비스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현정 등[38]의 연구는 청소년들이 대학생으로 성장하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보다 진로교육 경험, 교사 및 교우 관계, 교내외 활동 참여를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에의 참여, 높은 사교육비 지출 등이 진로성숙 수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8][23]. 가정

의 경제 상황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의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지도 및 상담이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동시에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과 가구 소득과의 상관관계 안에서 진로지도 및 상담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녀의 진로성숙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부터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고용패널조사의 청년패널 (Youth Panel 2007) 데이터 중 1, 3, 5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년패널데이터의 2013년 5차 조사 시기 원표본 유지율은 78.9%(8,113명)로 나타났다[48].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 중 1차시기와 3차시기 고등학생, 5차시기 대학생으로 유형 분류된 456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등학생 시기 가구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진로성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측정도구

2.1 가구 소득

가구의 총 근로소득은 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직장에서의 받은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하여 만원 단위로 조사되었으며 가구 내 근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되었다. 가구소득은 4분위 값 중 제 1사분위 값(Q1)과 제3사분위 값(Q3)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가구 총 근로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하위 소득 가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 경우를 중위 소득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위 소득 가구로 간주하였다.

2.2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은 1차 조사 시기 고등학생이었던 대상자들의 응답으로 평가되었다. 진로지도 및 상담은 1:1 면대면 상담,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개인상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집단상담, 직업진로관련 체험학습, 심리검사, 직업 및 진로관련 동영상 시청, 진로지도관련 전문가 강의 등을 포함하였다.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은 경험이 없는 경우(0)와 한 가지 유형 이상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1)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3 진로성숙 수준

진로성숙 수준은 진로성숙척도 21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되었다. 진로성숙척도는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지 생각하고 있다”,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나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 등과 같이 진로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보여주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의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진로성숙 수준은 점수의 총합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때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채점하여 합산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시기 진로성숙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1, 3차시기의 신뢰도는 0.86, 5차시기의 신뢰도는 0.8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청소년 자녀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중 고등학생 대상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가구 소득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유무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X^2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구소득과 청소년의 진로교육 참여 경험에 따른 진로성숙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진로성숙 수준이

반복해서 측정된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1차, 3차, 5차 조사 시기에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가 가구 소득과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는 등분산성과 구형성(sphericity)가정이 충족될 때 신뢰할 수 있다.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여부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진로성숙 변화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Box의 공분산 행렬을 통한 등분산성 검증 결과는 그 유의확률(p=0.11)이 0.05 이상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형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auchl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의 유의확률(p=0.40)이 0.05이상으로 구형성의 가정이 충족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IBM SPSS 22.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본 중 여학생은 294명으로 64.5%를 차지하였고 남학생은 162명으로 35.5%를 차지하여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1차 조사 시기에서 3차 조사 시기 동안 고등학생으로 분류된 대상자들 중 5차 조사 시기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 1년 간 가구의 근로 소득을 살펴보면 평균 3,998만원, 표준편차가 1,800만 원으로 보고되었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약 1억5,000만 원이었다.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하위 소득 가구 청소년은 19.1%,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중위 소득 가구 청소년은 51.7%,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인 상위 소득 가구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중 28.7%를 차지하였다.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시기부터 대학교 시기까지 진로성숙의 수준이 차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이 차츰 증가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3].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 결과

변수	변량	n	(%)			
성별 N=456	남	162	(35.5)			
	여	294	(64.5)			
진로 지도 및 상담 경험 N=456	없음	246	(60.7)			
	한 가지	88	(21.7)			
	두 가지 이상	71	(17.5)			
가구 소득 N=406	3000만원미만	78	(19.1)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211	(51.7)			
	5000만원이상	117	(28.7)			
변수	조사 시기	평균	표준 편차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진로 발달 N=344	1차	85.38	11.31	86.00	61.00	120.00
	3차	88.51	11.49	88.00	38.00	116.00
	5차	89.56	10.92	89.50	65.00	124.00

2. 가구 소득과 청소년 자녀의 진로교육 경험과의 관계

고등학생 시기 가구 소득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의 소득 수준은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오히려 중상위 소득 수준의 다른 청소년들보다 높은 진로교육 경험률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X^2=3.63$, $p=0.16$).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 경험이 가구 소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이루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로교육의 기회가 학교 등의 공공조직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3. 가구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에 따른 진로 성숙 변화의 차이 분석 결과

3.1 조사 시기 별 진로성숙 수준 변화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시기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단, 진로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의 경우 진로성숙 수준이 대학교 진학 이후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가구소득과 진로교육 경험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의 변화

요인	N	진로성숙					
		고1시기	고3시기	대학생 시기			
진로 지도	가구 소득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경험 있음	하위	38	88.63 (9.94)	89.66 (11.24)	92.92 (10.48)		
	중위	77	84.36 (11.20)	87.17 (9.75)	89.49 (10.31)		
	상위	45	89.07 (12.67)	88.56 (12.84)	92.07 (11.23)		
경험 없음	하위	40	84.93 (13.84)	89.90 (12.19)	87.65 (10.18)		
	중위	134	83.69 (10.73)	86.86 (12.19)	88.18 (10.08)		
	상위	72	86.04 (10.12)	91.81 (10.23)	90.14 (13.02)		
Total	406	85.42 (11.31)	88.54 (11.50)	89.60 (10.93)			

3.2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개체 내 효과 검정 결과

개체 내 효과 검정 결과에 따르면 조사 시기 별 진로 성숙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그러나 아래의 [표 3]과 같이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조사시기별 진로성숙 수준의 변화 패턴(조사시기*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조사시기별 진로성숙 수준 격차의 변화 유형이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조사 시기 별 진로성숙 수준 격차의 변화 패턴은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즉,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성숙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개체 내 효과검정 결과

항목	Type III SS	df	MS	F
조사시기	2853,26	2	1426,63	16,64***
조사시기 * 가구소득	126,097	4	31,524	0,36
조사시기 * 진로지도 및 상담	565,204	2	282,602	3,29*
오차	68521,71	800	85,65	-

* $p < 0.05$, ** $p < 0.01$, *** $p < 0.001$

3.3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개체 간 효과 검정 결과

개체 간 효과검정(between objects effect)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반면에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은 진로성숙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개체 간 효과검정 결과

항목	Type III SS	df	MS	F
절편	7869396,17	1	7869396,17	38831,58***
가구소득	2290,92	2	1145,46	5,65**
진로지도 및 상담	376,88	1	376,88	1,86
오차 (조사시기)	81467,13	402	202,65	

* $p < 0.05$, ** $p < 0.01$, *** $p < 0.001$

구체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사후검정 결과는 가구소득에 따라 구분된 개체 간 진로성숙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중위 가구소득 청소년들의 낮은 진로성숙도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은 높은 가구소득, 낮은 가구소득, 중간 가구소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높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가구소득이 중간 수준인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개체 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정 결과

가구 소득		평균 차이	표준 오차	p
하위 소득	중위 소득	2.39	1.09	0.08
	상위 소득	-0.64	1.20	1.00
중위 소득	하위 소득	-2.39	1.09	0.08
	상위 소득	-3.0241**	0.95	0.00
상위 소득	하위 소득	0.64	1.20	1.00
	중위 소득	3.0241**	0.95	0.00

*p<0.05, **p<0.01, ***p<0.001

3.4 가구소득과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 변화 추이

아래 [그림 1]과 [그림 2]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진학 이후까지 가구소득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 때, [그림 1]은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림 2]는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성숙 수준의 변화를 선형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 이후의 세 시점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진로성숙 수준은 가구소득이 높은 청소년, 가구소득이 낮은 청소년, 가구소득이 중간인 청소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개체 간 효과 검정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 1]과 [그림 2]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가구소득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는 진로지도 및 상담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림 1]과 [그림 2]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성숙의 변화 양상이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고등학생 시기부터 대학교 진학 이후까지 진로성숙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 진학 이후 진로성숙 수준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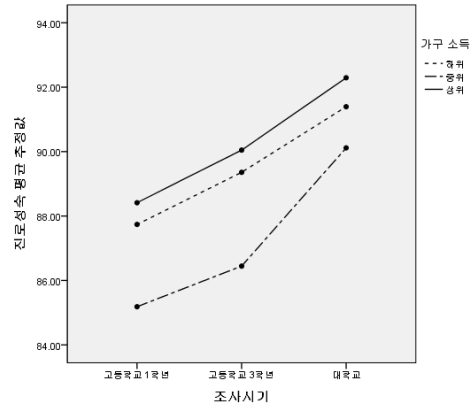


그림 1.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 변화: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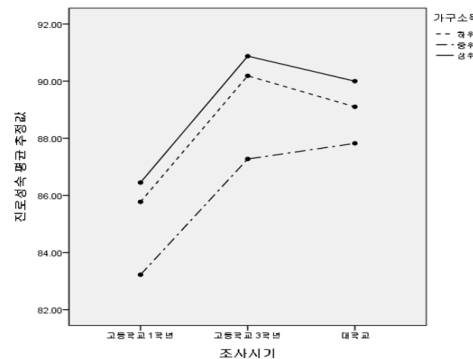


그림 2.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 변화: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없는 청소년 대상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식적 서비스로서의 진로지도 및 상담과 부모의 가구소득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진로지도 및 상담과 가구소득이 청소년의 진로성숙 과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과 가구 소득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면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

라 진로지도 및 상담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진로지도 및 상담이라는 공식적 서비스가 주로 학교 교육과정 중에 집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 시기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여부에 따라 진로성숙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고등학생 시기에서 대학생 시기까지 지속적인 진로성숙의 향상을 경험하는 반면,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교 진학 이후 진로성숙의 정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 결과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청소년의 진로성숙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구소득을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진로성숙과의 연관성을 검증한 결과, 가구소득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두 집단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을 보였고 이는 대학교 진학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청소년들이 진로발달 면에서 우세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9].

그러나 가구소득 수준이 중간인 청소년들과 낮은 청소년들 간의 진로성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를 검증한 노혁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9], 가구소득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가 정적인 선행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한다. 노혁은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특화된 진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중산층 청소년들에게 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9].

넷째,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시기에 걸친 진로성숙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를 보면 고등학생 시기 학년이 올라가면서 향상되던 진로성숙의 수준은 대학교 진학 이후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특히 고등학생 시기 진로지도 및 상담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많은 청년들이 성인진입기에 이르기까

지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해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54], 대학생 시기에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진로성숙이 가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재학 시기에 걸친 진로성숙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데이터 중 1차에서 5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데이터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기가 대략 2007년에서 2009년으로 2010년대 실시된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연구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010년대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접적인 직업 체험의 기회가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실시된 진로지도 및 상담 서비스의 효과는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것 이상일 수 있다.

진로성숙이 다양한 관련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발달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진로성숙의 변화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모형과 분석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잠재성장 모형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모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5].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55].

또한 앞으로의 연구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의 유형을 구분하여 포함하고 진로교육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직업 교육, 대학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추구하는 청소년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진로 교육의 장·단기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기 및 성인진입기 전반에 걸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충기, 김현옥, “청소년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직업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143-160, 1989.
- [2]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3rd ed.)*,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7.
- [3] 이승구, “고등학생의 취업목표와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14 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646-679, 2014.
- [4] J. O. Crites,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McGaw-Hill Book Co, 1981.
- [5]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Prentice-Hall, 1973.
- [6] 김영태,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광운대학교대학원논문집*, 제34권, 제2호, pp.81-105, 2005.
- [7] 통계청, e-나라지표: 취학률 및 진학률, 2017.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2018. 7. 10.
- [8] 노법래,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pp.171-193, 2013.
- [9] 노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305-327, 2006.
- [10] 최윤미, 이문희,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제19권, 제2호, pp.171-187, 2011.
- [11] D. E. Super,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Vol.57, pp.151-163, 1955.
- [12]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and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197-261, Jossey-Bass, 1990.
- [13] M. L. Savicka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Vocational Behavior: Career Patterns, Salience, and Theme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Vol.1, pp.49-57, 2001.
- [14] 문은식,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제22권, 제1호, pp.21-35, 2015.
- [15]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pp.109-125, 2014.
- [16] 신선아, 전종설, “청소년의 애착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3호, pp.111-136, 2015.
- [17] 이경희, 윤미현,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1호, pp.175-199, 2011.
- [18] E. J. Porfeli and B. Lee, “Career Developm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Vol.134, pp.11-22, 2012.
- [19] 강현구, 송지나, 정수지, 이순형, “초기 청소년기 진로결정 수준과 대학 및 전공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8권, 제3호, pp.57-88, 2015.
- [20] A. K. Korman,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ived Abilitie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51, No.1, pp.65-67, 1967.
- [21] 신호정, 이문희, “진로성숙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7호, pp.139-161, 2011.
- [22] 어윤경, “청소년의 희망직업 지위와 진로 기대감 변화추이,” *교육학연구*, 제46권, 제4호, pp.81-108,

- 2008.
- [23] 이자형,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 요인에 관한 중단적 분석-진로계획성과 진로관심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0호, pp.289-316, 2015.
- [24] 조명희, 이해연, 이현우, “고교생의 진로발달,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중단적 변화와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2호, pp.91-122, 2013.
- [25] 허균,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진로성숙도의 변화궤적과 성별, 자아존중감 및 부모애착 시간효과의 구조 관계,”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pp.193-209, 2012.
- [26] 김봉환, 김아영, 차정은, 이은경, “청소년용 진로 발달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제8권, 제2호, pp.583-602, 2007.
- [27] 임언, 정윤경, 상경아,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28] 안재진,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유형이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9권, 제1호, pp.85-107, 2017.
- [29] J. O. Crites, *Administration and Use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2nd ed.)*, CTB/McGraw-Hill, 1978.
- [30]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개발 및 타당화,” 아시아교육연구, 제12권, 제3호, pp.27-53, 2011.
- [31] 김희수, 김옥희, “진로성숙도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4호, pp.57-68, 2007.
- [32] 박미란, 이지연,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학교교육의 효과 검증,” 인간이해, 제31권, 제1호, pp.65-88, 2010.
- [33] 이재경, 이승구, “취업 청소년의 진로기대 및 취업준비행동,”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8호, pp.121-137, 2007.
- [34] A. Lareau,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35] S. F. Reardon, “The widening academic achievement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New evidence and possible explanations,” In G. J. Duncan and R. J. Murnane (eds.), *Whither Opportunity?: Rising Inequality, Schools, and Children’s Life Chances*, pp.91-115, Russell Sage Foundation, 2011.
- [36] M. Vuolo, J. T. Mortimer, and J. Staff, “Adolescent Precursors of Pathways from School to Work,”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24, No.1, pp.145-162, 2015.
- [37] 김현주, 김준영, “청소년의 진로 이행과 청소년, 부모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pp.23-52, 2010.
- [38] 임현정, 김양분, 김난옥, “대학 입학전후 진로성숙 변화의 영향요인 탐색,”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8권, 제3호, pp.27-56, 2015.
- [39] E. Flouri and A. Buchanan, “The role of work-related skills and career role models i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51, pp.36-43, 2002.
- [40] 김소라, 황영준, “진로체험과 프로그램평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pp.167-190, 2016.
- [41] 김신영, 최은실, “진로체험학습에서 학생·교사의 주도성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7권, 제4호, pp.71-93, 2014.
- [42] 장현진, 윤형환, 김민경, 류지영, 이지은, 유미애, *진로교육 현황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 [43] 김소영, 홍세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의 관련성 검증,” *조사연구*, 제14권, 제1호, 2013.
- [44] 조효정, 황매향, “직업체험중심 진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pp.285-312, 2014.

- [45] 송인발, 강혜영,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 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0호, pp.140-149, 2016.
- [46] 김중운, 이태근,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 효능감 및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339-349, 2014.
- [47] 박효미, 이혜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304-312, 2015.
- [48] 장현진, *학교 진로체험 현황 및 효과 분석 조사 통계 브리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 [49]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진로체험의효과: 진로성숙도와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제33권, 제3호, pp.19-36, 2014.
- [50] 허정철,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pp.154-164, 2015.
- [51] F. Meijers, M. Kuijpers, and C. Gund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mpetencies, career identity, motivation and quality of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Vol.13, pp.47-66, 2013.
- [52] 최윤정, 김지은,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및 진로교육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다수준 분석의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pp.81-106, 2012.
- [53] 한국고용정보원, *User's Guide: YP2007 I~9차 조사자료*, 2018.
- [54] 장현진, 정윤경, 김민경, 류지영,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 [55] 이화정, 강석봉, “청소년패널자료 분석에서의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4권, 제6호, pp.1409-1419.

저 자 소 개

원 지 영(Ji Young Won)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3년 6월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12월 : 시카고대학교 사회서비스행정대학(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청소년진로발달, 청년고용, 사회관계망